

친구가 많은가요? ... 뇌가 크시네요!

빅퀘스천
김대식 지음



**우리는 누구인가? ... 31가지 위대한 질문
영생 하려면 기억의 뇌 '해마'를 복사하라**

친구의 수가 뇌의 크기에 따라 많고 적어질 수 있다면 믿겠는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날개도 없는 영장류는 혼자서 생존하기 어렵다. 이에 집단을 형성하는데, 옥스퍼드대학의 로빈 단바 교수의 주장은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영장류 집단의 구성원 수가 대뇌피질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령, 뇌가 작은 명주원숭이는 10마리 안팎의 무리를 형성하고, 대뇌피질이 큰 침팬지들은 100마리에 가까운 구성원과 함께 산다.
그렇다면 사람은, 영장류 집단에서 얻은 이 같은 데이터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집단 구성원 수는 150명가량 된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다면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과 교수의 신간 '빅퀘스천'을 펴와야 한다. 김

교수가 거대한(?) 질문 31가지에 관한 성찰을 모아 엮은 책이다.
책은 과학적 지식 이외에도 철학과 문학, 역사, 신화적 지식을 넘나들며 질문을 던지고 저자가 답하는 식으로 쓰였다.
'우리는 왜 먼 곳을 그리워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떠나는 진정한 이유는 어쩌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인지 모른다"는 답을 내놓는다. 저자는 이를 항수병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태어난 지 몇 시간, 고향이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1년, 인간은 10년까지 유지되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 성장한 뇌는 한국에 최적화된 뇌를, 카르타고에서 자란 뇌는 카르

타고에 최적화된 뇌를 가지게 된다.
인간은 성숙을 위해 떠나지만 결정적 시기에 형성된 뇌 때문에 결국에는 귀향을 하거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이를 헤어짐, 성숙 그리고 귀향의 단계로 설명한다.
누구나 한 번쯤 품었을 '영생' 이야기도 등장한다. 저자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탄소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현재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해마다 1000억t가량의 탄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중 5억t 정도만 생태계에서 생산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995억t의 산소는 어디서 온단 말인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 나머지 995억t의 탄소는 죽은 생명체의 시체들을 재활용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에 필요한 탄소를

행복한 책 읽기

유희춘 '미암일기'
(국학자료원 권)



'미암일기'의 저자 유희춘은 1513년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유계린은 김광필의 학통을 이은 성리학자였으나 벼슬에 나가지는 않았다. 미암의 외조부는 세계3대 중국여행기인 '표해록'의 저자 금남 최부다. 26세에 벼슬길에 나갈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미암 유희춘. 그의 일기는 1567년에서 1577년에 걸쳐 약 11년간을 기록한 것이다.
미암 유희춘은 양재역 벽서사건(명종 2년)으로 19년간 제주와 함경도 충성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위로는 여왕(문정왕후), 아래로는 간신이 날뛰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라는 글귀가 윤원형에 의해 조작, 양재역에 붙여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당했다. 고된 유배생활 중에 미암은 수많은 책을 읽고 저술을 한다.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미암 유희춘은 홍문관 부제학에 오른다.
명종의 후사가 없어 겨우 세자에 책봉되었던 선조. 당시, 선조(중종의 아홉째 아들 덕흥군의 3남 하성군)는 궁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식견이 좁았다. 선조가 즉위한 후, 가장 필요했던 이들은 사립이었다. 선조는 홍문관 신하들의 의견에 적극 귀를 기울였다. 즉위한 해 11월 5일 밤, 선조는 야심한 밤에 경연(왕에게 경서와 역사를 강론하는 일)을 요청한다. 선조에게 유희춘과 허엽이 함께 고한다. "정심이정조정(正心以正朝廷),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한다. (--) 얹드려 왕하

새로 나온 책

▲이것이 마윈의 알리바바! = 알리바바의 탄생부터 지금까지를 다루며 알리바바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분석한 책. 저자는 '가장 최신의 알리바바'를 알고 싶어하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 특별히 2014년 가을까지 알리바바의 행보와 알리바바가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를 전망한 원고를 추가했다. 책에는 마윈이 기업 운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 사업 비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이레미디어·1만4500원>
▲파도의 호모 사이언티피쿠스 = 벵커 원에서 진행되는 토코소 '과학같은 소리하네'로 대중에게 과학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공유하고 있는 과학 전도사 파도. 과학자, 작가,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과학 전시, 강연, 공연을 기획·연출하면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가 현대 과학, 인문학, SF를 통섭하는 책을 썼다.



그는 과학이란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방법이자 태도임'을 알고자 한다. <생각비행·1만6000원>
▲피워 오브 러브 =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과학과 영성, 이성과 직관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현실을 전하는 데 힘써온 브라이언 와이즈 박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았다. 책을 통해 그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 삶의 깊은 의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스스로를 사랑받는 방법 등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는 고민거리에 대한 해답을 제



시한다. <윤앤리 퍼블리싱·1만5000원>
▲세개사, 내일을 타다 =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기본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지금, 이제 인류는 문명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도록 누구나 안락함과 편리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책은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세계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현재의 민낯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봄물·1만3000원>

▲검사의 순정 = 예지 않은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과정 도중 여실히 드러난 한국의 총체적인 부패상 속에서 이단 종교의 비리를 추적하는 장편소설. 각종 검사 오재도의 피 말리는 수사과정과 영혼이 맑은 그의 순애보를 담고 있다. 담양 출신 작가 한상희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애련(哀戀) 스토리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라가 부패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하며, '관피아' 속성과 고질적인 지역감정 문제점 등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우리마음북스·1만4000원>
▲화폐 경제 1 = 중국 CCTV의 핵심 제작팀이 모여 해외 로케이션을 통해 제작한 10부작 다큐멘터리 화제작 '화폐'를 담아 낸 책. 처음 화폐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순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최근까지 5000년에 걸쳐 화폐와 세계 경제가 동고동락해온 역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의 눈높이로 풀어냈다. <가나출판사·1만5000원>

왕에 간언 멈추지 않은 호남사람의 기록

유길재, 전하계서는 유념을 하옵소서.' 선조 즉위 당시, 선조는 을사사화 이후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당시 선조의 측근에 있었던 미암을 비롯한 기대승, 허엽 등 신하들의 역할이 컸다.
미암 유희춘은 고봉 기대승과는 홍문관에서 만나 함께 근무하며 정사와 학문을 토론했다. 면양정 송순과는 절친했으며 허서 김인후와는 사돈지간이었다. 송강 정철과도 술잔을 기울이며 의견을 나누었다. 허엽은 미암일기에 빈번하게 기록이 되는 인물. 허균과 허난설헌의 아버지 허엽이 기록된 부분을 읽으며 미암의 교우관계의 깊이를 읽는다. '광주의 송제민이 나의 '주자대전' 제 7권을 가지고 왔다. 이는 전일에 잃어버려 모자랐던 것인데 이제 얻게 되어 몹시 기쁘다.' 송제민은 임진왜란 때, 호남의병 모집 격문을 쓴 인물이었다. 위로부터 아래를 막론하고 사통팔달, 주변의 많은 이들과 학문을 논하던 미암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였다.
당시, 사람들은 선조 즉위 초, 왕에게 간언을 멈추지 않아 왕의 의로운 치세를 도왔다. 고봉 기대승이 선조에게 자주 글을 올린 구절들이나 퇴계 이황과의 교류 등이 '미암일기'에도 자세히 실렸다.
현재 역사가들은 선조를 무능력하고 치졸한 임금이라고 평한다. 강력한 사람들이 충언을 했으나 당쟁이 왕을 어지럽게 했다. 왕의 곁에는 후사를 낳지 못한 의인왕후 박씨 대신, 인빈 김씨와 선조의 총애를 받고 국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암과 허엽, 고봉 기대승 등 임금께 직언할 수 있는 학자들이 모두 정계에서 물러난 후였다.
깊은 밤, '미암일기'를 찬찬히 읽는다. 미암 유희춘과 고봉 기대승, 퇴계 이황 등이 선조의 측근에서 충언하던 기록을 읽는다.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5년 전쯤의 일, '미암일기' 제 1권이요.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어린이 책

▲탄탄동 사거리 만복전파사 = '완득이'의 작가 김려령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장편 동화. 순두네 식구를 둘러싼 이웃들의 다복한 삶의 풍경과 아이들의 반짝이는 성정이 돋보이는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작가 특유의 사려 깊은 세부 묘사와 건강한 세계관으로 따뜻하게 담겨 있다. <문학동네·1만원>
▲흰곰과 겨울나무 =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스티븐 마이클 킹이 아이들의 외로움과 우정에 관한 심리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다. 다채롭게 변하는 푸르른 빛깔의 눈

과 한없이 따뜻한 흰곰의 캐릭터, 천진하게 슬픔과 기쁨을 보여주는 렌까지, 작가는 서정적인 글과 수채화 물빛의 부드러운 그림으로 따뜻한 감성을 표현했다. <같이보는책·1만1000원>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 행복마트에서 온종일 웃음을 지으며 고객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계약직 사원 구양순 여사와 아들 태양이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던져 주는 동화책이다. <어린이나무생각·1만1800원>
▲우리 아이 놀이대장 만들기 = 밥을 직접 해서 먹거나 한지를 만들어 보고 나만의 환경 주사위도 만들고 손에 그림 그려서 놀기 등 삶의 여러가지 상황을 놀이로 만들어서 보여준다. 전래놀이, 주변놀이, 자연놀이, 쉬운 놀이, 새로운 놀이 등 놀이 방법 50가지를 사진을 통해 생중계하듯 알려준다. <고래가슴쉬는도서관·1만9000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